

# 일본 친구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

김진현 지음, 한길사, 2006

글 | 이덕환 \_ 서강대 화학과 교수 duckhwan@sogang.ac.kr

일본은 정말 우리에게 묘한 존재다. 한 마디로 가까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칠 수도 없는 그야말로 계류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일본이다. 우리가 '유전적으로 중국인보다 일본인에 더 가깝다'고 하는 데도 그렇다. 한국인 43명의 단일염기다형성(SNP)을 비교해보면 '도쿄에 사는 일본인의 보통염색체는 5.86%, 성염색체는 4.74%가 차이가 나는데, 중국인과는 각각 8.39%와 7.80%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규슈 지방 일본인을 상대로 했으면 더 가까웠을 것'이라는 것이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낸 김진현 박사가 '일본 친구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 서 밝힌 주장이다.

한 세기 전에 시작됐던 가슴 아픈 기억을 버리더라도 일본과의 관계는 정말 아쉽다고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한류'가 일본 열도를 휩쓸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일본의 지도층의 인식과 행동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망언을 쏟아낸다. 정말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먼 과거의 이야기는 잊어버리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과거사를 정리하기는커녕 고약하게 왜곡한다. 현실적으로 우리 땅일 수밖에 없는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우기고, 선박을 이용해서 그야말로 '협박'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동해'를 '일본해'라고 우기는 정도는 정말 약과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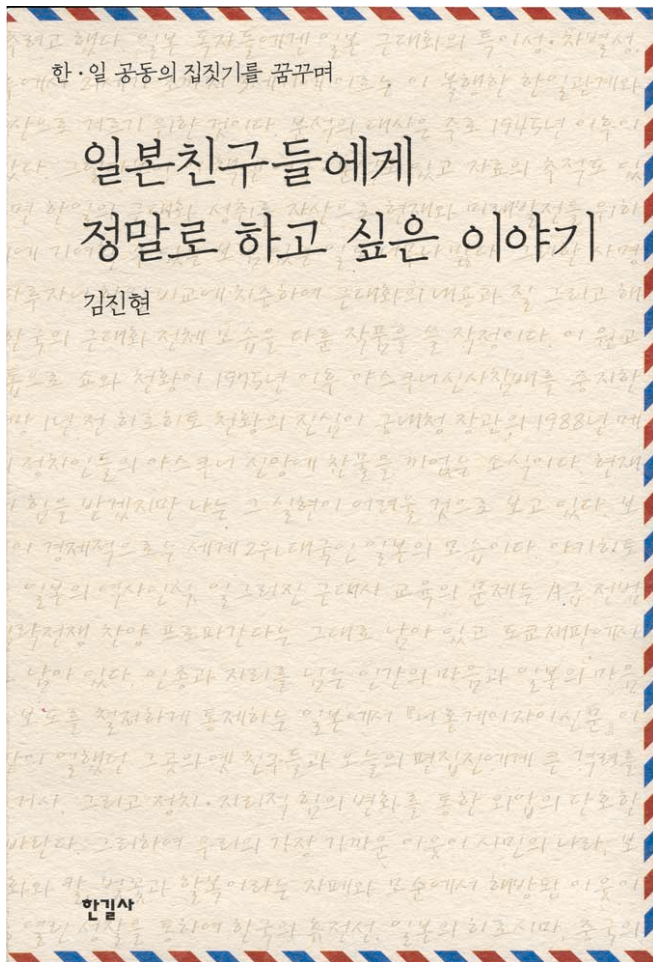
그런데도 우리는 일본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일본이 똘고, 알미워도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이웃이다. 그것도 세계에서 2번째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웃이다. 일본은 물론이고, 우리의 또 다른 이웃인 중국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이루지 못하면 아시아는 제쳐두더라도 우리의 스스로의 통일과 안정적인 번영도 이를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 뜻에서 한·일관계의 정상화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시대적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 일본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의 태도가 너무 순진했다. 가능하면 서로의 감정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현실의 문제를 풀어 가노라면 언젠가 일본의 태도도 달라지리라는 것이 우리의 정말 순진한 희망이고 꿈이었다. 스스로 인정하는 '글로벌리스트로서의 일본통'이었다는 김진현 전 장관도 그렇게 생각했다. '양국 모두 좁은 지역과 과거사에 함몰되지 말고, 세계와 미래를 향한 지구촌적 접근을 추구'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역사상 처음으로 정상, 평화, 인방의 관계'를 가능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그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 사태가 정말 심각하다는 뜻이다. 뒤늦게 한·일관계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들은 또 있다. 한·일수교의 주역이었던 김종필, 박태준 전총리들도 그렇다. 이제는 그분들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냈다. 한·일수교 4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똑같이 "일본의 독선과 오만, 폐쇄를 가감 없이 지탄하고, 올바른 역사인식과 역사 청산 없이는 한·일관계 정상화가 어렵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토론했다"는 것이다.

이제야 말로 일본에 대한 순진한 환상을 버려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정상적인 한·일관계는 우리의 일본에 대한 정확한 현실 파악이 전제가 되어야만 한다. 김진현 전 장관의 결론은 지극히 단순하다. '일본의 개혁, 유신, 혁명은 역사적으로 외압, 타율, 힘에 의해서만 가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결국 우리의 힘을 키우지 못하면 정상적인 한·일관계는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독일과 프랑스의 관계 정상화도 두 나라의 힘이 대등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다행히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우선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의 힘이 몰라보게 커졌다. 우리가 그 동안 이룩한 '근대화, 정치 민주화, 사회적 개방, 과학기술의 도약'으로 이제 우리는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분야가 과학기술이다. 해방 전에 우리



의 현실은 참담했다. 전국에 조선 남학생을 위한 중학교는 4개뿐이었다. 1915년 당시 사립고등보통학교 3개, 여자고등보통학교는 4개뿐이었다. 고등보통학교까지의 수업 연한도 일본인들보다 3년이 짧았고, 교과목도 달랐다. 1930년대에 전략적 필요에 의해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했지만, 이공계는 1941년해야 개설되어 해방까지 고작 34명을 졸업시켰을 뿐이다. 일본에서 이공계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고작 6명이었다. 1938년 조선과학기술자 명부에 따르면, 한국인은 360명으로 조선에 거주하던 전체 과학기술자의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그런 우리가 이제는 특유의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까지 도입했고, 2004년에는 GDP 대비 2.85%를 연구개발에 투자했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비서양 후진국 중에서 연구개발 투자에서 선진국 수준에 이른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아직 실제 규모의 면에서도 뒤져 있지만, 인구와 1인당 GDP 격차를 고려하면 상대적 수준에서 이미 일본과 미국을 따라잡은 셈이다. 그런 격차도 현재

의 인구나 소득격차보다 훨씬 빠르게 축소될 것이다. 과학기술 인력은 이미 공급 초과 상태이고, 특히 출원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그런 발전은 온전히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이룩된 것이다.

더욱이 아시아의 정세는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의 급속한 성장에 맞추어 일본의 인구나 국력이 줄어들고 있다. 2050년이 되면 일본 열도의 인구가 우리와 비슷해진다는 것이다. 일본의 인구는 2006년 1억2천714만 명을 정점으로 2050년이면 9천442만 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우리의 인수도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에게서는 북한이 있다. 2천 만을 조금 넘는 북한의 인구는 2050년이면 4천 만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다. 결국 2050년이 되면, 남북한의 인구는 일본의 65%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우리가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과 OECD 국가 중 최고의 교육투자 비율, 해외 유학과 함께 높은 비율의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하면서 한류식 문화 콘텐츠 개발에 힘을 쓴다면 일본과 대등하게 겨루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진정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아키히토 일왕의 '역사 선언'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이 김진현 전 장관의 주장이다. 일왕이 주도하는 일본의 개혁과 혁명이 없으면 한·일 공동의 '근대화 집짓기'도 '21세기 초근대 대안 찾기', '지속발전가능성의 창조'가 모두 불가능해지고, 공멸이 있을 뿐이다. 우리도 이제 정치가나 관료가 아니라 왕실에 대한 외교라는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만 한다. ㉔

〈과학독서아카데미 추천 도서〉

1. 『위기의 환경주의 오류의 환경정책』, 홍욱희, 지성사, 2006
2. 『과학으로 생각한다』, 이상욱, 동아사이, 2007
3. 『청소년을 위한 한국과학사』, 정인경, 두리미디어, 2007
4. 『한국의 과학기술 이야기 1, 2』, 이종호, 박택규, 집사재, 2006
5. 『지구』, 제임스 루어, 김동희, 사이언스북스, 2006